

4 강. 마르크 샤갈: 혼란의 시대, 사랑을 색으로 남기다

2026 년 4 월 30 일 10:30-12:0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은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 화가로, 97 세까지 살며 한 세기를 가로지른 20 세기 최장수 거장 중 한 명이다.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 어떤 사조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했다. 공중에 떠다니는 인물, 꿈과 현실이 뒤섞인 색채, 고향 비텟스크의 기억과 유대 민속 이미지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다. "예술에도,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비텟스크의 가난한 소년 (1887-1910)

9 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어 창고 노동자였다. 친구가 삽화를 따라 그리는 걸 보고 충격 받아 화가를 결심했다. 반유대주의가 극심한 러시아를 떠나 1910 년 파리로 향했다.

파리, 사랑 그리고 에콜 드 파리 (1910-1933)

야수파와 입체파를 흡수했다. 1909 년 고향에서 벨라 로젠펠트(Bella Rosenfeld)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성공하면 돌아와 청혼하겠다"는 약속 후 파리로 떠나 살롱 도톤(Salon d'Automne)-살롱 데 쟁데팡당(Salon des Indépendants) 전시로 인정받고 1915 년 결혼했다.

전쟁, 망명, 벨라의 죽음 (1933-1944)

1933 년 히틀러가 집권했고, 샤갈의 작품은 '퇴폐 예술'로 낙인 찍혔다. 나치 침공으로 미국으로 망명했으나 1944 년 9 월 2 일 뉴욕에서 벨라가 바이러스로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9 개월간 붓을 들지 못하고 모든 그림을 벽 쪽으로 돌려두었다.

파랑과 사랑의 완성 (1945-1985)

벨라의 수첩을 책으로 엮으며 《타오르는 불꽃》을 출판했고, 다시 붓을 들었다. 이 시기부터 샤갈의 그림에는 더욱 깊고 짙은 파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단순한 색이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 영혼이 한꺼번에 녹아든 색. 미술사에서 따로 '샤갈의 파랑'이라 부를 만큼 그것은 그만의 색이 되었다. 니스에 샤갈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샤갈은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Palais Garnier) 천장화를 완성했다. 1985 년 마지막 작품 <또 다른 빛을

향하여>를 남기고 별세했다.

샤갈은 1, 2 차 세계대전, 반유대주의, 망명,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을 주제에서 놓지 않았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이것이 강연 부제 '혼란의 시대, 사랑을 색으로 남기다'의 이유다.



나와 마을, 1911



생일, 1915



연인들, 1937

정우철(도슨트·작가) 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미술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의 삶과 예술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전시 해설가. 지은 책으로는 『화가가 사랑한 밤』, 『화가가 사랑한 바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 『미술관 읽는 시간』,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 극장 1~2』 등이 있다.